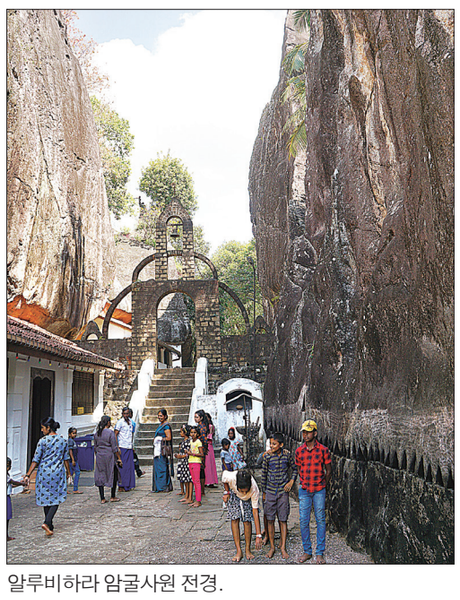

담불라 석굴사원 전경.


알루비하라 암굴사원 전경.


담불라 석굴사원 내부 모습. 담불라 사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신 불치사.


스리랑카 랜드마크 시기리야 팔레스.


신심 높은 스리랑카 불자들.

부처님께서 세 번이나 방문했던 '불국정토'

부처님 치아사리 봉안된 불치사
동굴 속에 조성한 '담불러 사원'
국민 중 70% 불자… 신심 '귀감'

인도양의 진주라 불리는 스리랑카는 천혜의 자연과 불교 성지를 자랑하는 국가다. 스리랑카와 불교와의 인연은 매우 깊은데, 이는 스리랑카의 고대사를 정리한 〈마하완사〉에도 잘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리랑카를 세 번이나 찾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스리랑카 인구 중 70%가 불자이며, 이들은 신실한 신심을 자랑한다. 또한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신 캔디의 불치사와 담불러 동굴사원 등 불교문화유산도 풍성하다.

5월 4일 작고한 故김주일 편집국장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스리랑카 관광청의 초청으로 스리랑카 순례를 다녀왔다.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리랑카 불교 성지를 소개한다. 사진은 순례에 동행했던 이재형 법보신문 편집국장이 제공했다.

〈편집자 주〉

정리=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스리랑카 신심 정수 '담불라 사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담불라 동굴사원(Dambulla Cave Temple)'은 스리랑카의 신심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사원을 조성한 사람은 왓타가마니 아브하야(Vattagamani Abhaya) 왕이다. 그는 타밀족의 침략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담불라 지역까지 내려왔다. 이곳에서 14년간 인고의 세월을 보낸 왕은 기원전 89년 수도였던 아누라다푸라를 탈환했다. 금의환향한 왓타가마니 왕은 아누라다푸라로 돌아간 후 담불라에 석굴과 불상을 조성해 불법이 융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담불라 사원은 5개의 동굴에 조성됐으며, 그 안에는 157구의 불상이 있다. 동굴에 있는 그림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크기의 입상이 157개나 된다. 제1동굴은 가장 오래된 석굴사원으로 '신들의 사원'이라는 별칭이 있으며, 14m에 달하는 거대한 와불이 있다. 제2동굴은 담불라 최대 동굴로 일명 '위대한 왕의 사원'이라고도 불린다. 제3동굴은 18세기에 조성됐으며, 9m 와불과 다양한 불상군들이 있다. 제4동굴은 좌불이 밀집해 있으며, 제5동굴은 20세기 초에 조성됐다.

부처님 치아사리 모신 '불치사'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사리가 8섬 4말이 나왔다고 경전에는 기록돼 있다. 무게로만 약 700kg에 달하는 건데, 그 만큼 많은 사리가 나왔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사리는 8개 나라에 분배돼, 사리 · 탑 신앙의 토대가 된다.

부처님이 직접 세 번이나 방문해 설법까지 한 스리랑카에 진신사리가 없겠는가.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을 들라면 단연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한 '불치사'를 꼽을 수 있다. 불치사는 신심 깊은 인도 칼링가 왕국의 헤마말라 공주가 머리카락 속에 치아사리를 숨겨 모셔왔다는 창건설화가 전해진다. 고대 도시 아누라다푸라와 폴로나루와를 거쳐 봉안했으며,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불자들의 순례가 이어지는 성지다.

불치사의 맨 위층, 금과 보석으로 만든 겹겹의 상자 안에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다. 불치사는 1803년 스리 위크라마 라자싱헤 왕(1798~1815년 재위)이 지은 파티리푸와 탑과 통로로 이어져 있는데, 이 탑은 야자나무 잎에 기록한 귀중한 필사본들을 보관하고 있다.

最古 패엽경 있는 곳, 알루비하라 사원

마탈레에 소재한 알루비하라 암굴사원(Aluvihara Rock Cave Temple)은 스리랑카 불교의 상징인 패엽경이 완성된 곳이다.

기록에 따르면 왓타가마니 아브하야 왕은 타밀족을 몰아낸 뒤 수도 아누라다푸라를 수복했지만, 민중의 삶은 엉망진창이었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복원하기 위해 새로운 결집을 시도했다. 왕의 명에 따라 500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알루비하라 암굴사원에 모여 7년 동안 4차례 결집해 경 · 율 · 론 삼장을 세계 최초로 완성했다. 2000년 전 조성된 최초의 패엽경은 안타깝게도 1848년 영국군이 파괴했다.

현재도 알루비하라 사원을 찾으면 패엽경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다. 가사를 수한 스님이 잘 말린 잎사귀에 경전 내용을 새기는 작업을 선보이는데 신심이 절로 생긴다.

보리수 중심으로 조성된 아누라다푸라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는 스리랑카의 첫 번째 수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서 깊은 도시다.

아누라다푸라는 기원전 4세기에 건설되자마자 실론의 수도이며 불교의 신성 도시가 되었다. 서기 1000년 후 이야기로 전해 내려온 '마하남의 연대기(The Chronicles of Mahanam)'에 따르면, 아누라다푸라는 기원전 380년 판두카바야(Pandukabhaya) 왕자가 세웠다고 한다.

기원전 250년 무렵, 아소카 왕은 자신의 아들 마힌다(Mahinda)를 보내 판두카바야의 손자인 티사를 불교로 개종시키고자 했다. 티사는 불교를 믿는 실론의 첫 번째 왕 '데바남피야(Devanampiya)'가 되었다. 또한 아소카 왕은 부다가야의 보리수 가지를 딸이자 비구니인 상가미타로 하여금 티사 왕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지금도 이 보리수는 2200년을 넘어 순례 온 불자들을 맞이한다.

기원전 2세기 초 타밀의 침략 기간을 제외하면, 아누라다푸라는 10세기 동안 실론의 정치적 · 종교적 수도였다. 타밀의 침략을 무찌르고 브라만교 대신 불교를 중흥시킨 두타가마니(Dutthagamani) 왕(기원전 161~기원전 137)의 치세 때 아누라다푸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두타가마니는 미니사웨티 대탑(Dagaba Minisaweti), 루완웰리사야 대탑(Dagaba Rubanwelisaya), 브라젠 궁 등의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 팃사 왕자 때 높이 100m, 지름 290m의 웅장한 규모로 완공한 루완웰리세야 대탑은 지금도 스리랑카인들이 자주 참배하는 도량이다.

부처님 설법지 켈라니야 사원

〈마하완사〉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리랑카에 세 번 방문했다. 첫 방문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9개월이 지나 스리랑카의 야키족과 나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였다. 5년 뒤 야카족이 물러난 후 섬을 지배하던 나가족의 마호다라와 추호다라 형제 사이에 왕좌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자 부처님은 다시 방문해 두 형제를 화합시켰다.

세 번째 방문은 성도 후 8년째 되는 해에 이뤄졌다. 나투신 곳은 현재 수도 콜롬보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켈라니야였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설법을 하고 끝난 뒤 목욕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기념해 사원이 조성되니 바로 '켈라니야 라자마하 위하라'다.

이밖에도 높이 195m 바위산 위에 건설한 스리랑카의 랜드마크 시기리아팔레스, 세계인들의 차 실론티의 산지 우바, 포르투갈 · 네덜란드 · 영국이 식민지 기간 동안 만들어나간 유럽풍의 도시 갈레 등도 스리랑카를 찾는다면 가봐야 할 필수 코스다.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지구 안녕 발원
사부대중일동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전화 055)746-8162 팩스 055)746-7825

